

# 함평군, 외식업소 위생 강화.. '모든 업소' 위생물품 전달

### 군 위생팀·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명 구성 식품위생점검반 긴급 편성

#### “마스크 벗는 식사시간 가장 위험한 감염원 될 수 있던 생각에 점점 강화”

함평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외식업소에 대한 방역위생조치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부터 군 위생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명으로 구성된 식품위생점검반을 긴급 편성하고 관내 전체 외식업소에 대해 방역 등 위생관리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환

진자(전남26번)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부터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의 당국방역지침을 담은 공문도 발송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지도·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식업소에 대한 위생물품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위생마스크, 수저받침

대해 ▲손소독제(868개) ▲비접촉 식체온계(200개) ▲휴대용 소독분무기(300개) ▲손님용마스크(3000개) ▲개인용 집게(1500개) ▲개인용 앞접시(3000개) 등을 추가로 배부했다.

지원대상도 (사)외식업중앙회 전남함평군지부와 연계해 기존 지원 대상인 안심식당 26개소에서 330개 군 전체 외식업소로 늘렸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

질 때까지 현재 방역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방역관리대장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주기적인 환기 및 방역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는 식사시간이 가장 위험한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외식업소에 대한 방역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과 관내 외식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청 위생팀에서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위생 물품을 전달하고 방역활동을 점검하는 모습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친환경 살균소독수 제조기' 설치

11개소 7천만원 투입 무료 제공 생활방역 강화

무안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 방역을 강화하고자 각 읍면사무소, 보건소, 신도시사업소 등 11개소에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살균소독수 제조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소독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살균소독수(차아염소산나트륨)는 화학물질 없이 물과 소금, 전기만을 이용해 만들어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액으로 세균박멸과 각종 냄새탈취 효과가 있어 가정이나 식당,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안전맞춤이다.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문,

손잡이, 바다 등에 소독수를 분무한 후 자연건조하거나 깨끗한 천에 적셔 닦으면 된다. 소독수 작용해야 하고 소독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생활 속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군민들께서는 무료 제공되는 소독수를 이용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영암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사업 선정

### 각종 도시 인프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연계

영암군이 국토부 주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을 확보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연계시켜주는 기

반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통해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있는 70여

대의 CCTV에 찍힌 영상을 재난상황실, 112상황실, 119종합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더 안전한 영암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납치나 강도, 폭행, 화재 등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온다면 영암군 CCTV관제센터에서 CCTV현장 영상을 즉시 확인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져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6억원, 군비 6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구축 완료될 예정으로 구축 완료시점에 '영암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영암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일사 분란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영암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영광군,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영광군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국민 참여 창구의 일환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한 제도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까지이며, 영광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영광군 중앙로 203, 기획예산실 기획팀) 또는 이메일(yong9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당 1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9월 중 영광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에 공개될 예정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신청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110건을 공개하였다”라며, “공개된 사업 외에 군민들이 궁금한 사업에 대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목포시,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목포시는 오는 8월말까지 여름철 폭염 저감 활동을 추진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 23.6℃보다 0.5~1.5℃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일수

품 지원 ▲ 도로 물 뿌리기 ▲ 그늘막 운영(87개소) ▲ 폭염특보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야외활동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그늘막 운영(87개소)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는 20~25일로 평년 9.8일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목포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수립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

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밭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밭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